

연중 제 33주일(평신도주일)

제1독서 : 잠언31,10-13,19-20,30-31

제2독서 : 1데살5,1-6

특 음 : 마태25,14-30

술정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마태 25, 21).

강 린

소 리

“더불어 사는 삶”

황의옥 회장／평협

몸통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사람을 둘로 보아야 하는가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몸통이 하나이니까 한 사람이라 하고 머리가 둘이니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각각 대답합니다. 과연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요,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한쪽 머리가 히죽히죽 웃으면 두 사람이고, 뜨거워 못견뎌하면 한 사람이라고 질문자는 답합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공동체 삶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백성은 한 지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삽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삶, 우리는 평소 이웃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공동체란 운명과 삶을 함께하고 너와 내가 뭉쳐 일치를 이루며 바로 우리가 되는 조직입니다. 서로 이권을 위해 모인 집합체와는 다릅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능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집합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개인 구원을 위한 이기적 신앙과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본당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농촌 본당에서는 올캔 연주자가 없어 미사 때마다 애를 먹는가 하면 또 어떤 본당에서는 교리교사가 없어 청소년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200년 전 선교 초기의 공동체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전주교구 평협에서는 농촌 본당과 도시 본당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사랑나누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해당 본당을 찾아가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표양을 보여준다면 어떨지요. 신태인 본당의 동막 공소에서는 처음으로 유기농장을 시작하여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들이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9일~31일 3일 동안 악천우 속에서도 도시·농촌 사랑 나눔잔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26회 평신도의 날을 맞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감질나는 추곡수매”

며칠 전부터 추곡수매가 시작됐다.

아직 수매가와 수매량도 정해지지 않은 채 예년처럼 작년값으로 어물어물 수매가 진행되는 중이다.

너무 수확이 늦으면 미질이 떨어지고 손실이 많으니 벼를 빨리 거두도록 행정 당국은 권장했건만 들에는 아직 벼가 서 있는 곳도 있어 수확에 거는 농민들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짐작케 해준다.

올해에는 냉해 피해가 심해 산간부에서는 폐농을 한 농가가 많고 들녘에서도 잘된 농사래야 평년작이요 거의가 소출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품삯이 20%는 넘게 올랐고 목도열병을 막느라 농약값도 예년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는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모두가 수매가를 적어도 16% 이상 올려줄 것과 수매량도 되도록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정부가 취해온 양곡정책으로 미루어 이 같은 바램이 어느 만큼이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즘 수매장을 나서는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기껏해야 생산량의 20~30%를 수매하면서 제발 졸딱惭愧 나눠 하지 말고 한꺼번에 끝내 달라는 것이다.

세네차례 나눠 수매하는 바람에 품만 버리고 벼값도 끝돈이 되어 농협빚마저 제 때에 갚지 못하기가 심상이라는 호소들이다.

올해에는 이 같은 작은 소망도 이루지 못할 게 뻔하니 말해봤자 목만 쉴 뿐이다. 농정(農政)은 언제쯤이나 바로 설 것인가. **진**

술정이 산책



평신도의 역할

사목회장직을 맡으면서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신석만(그레고리오)/부안 성당 사목회장

부안 성당 사목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는 권유에서부터 회장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 저는 심적으로 많은 갈등과 번민, 그리고 고민의 연속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신부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방에 앉으시더니 “내가 무엇 때문에 신 선생을 방문하였는지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신부님은 이제는 별 수 없이 순명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겠다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며 회장직을 수락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절대로 수락할 수 없다고 사양하고 거절을 했지만 신부님은 들은 척도 안하시고 일어나셔서 저희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신부님을 찾아뵙고 “저는 연령으로 보아도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병으로 모든 공직을 젊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서서히 은퇴해야 할 시기이고, 또한 신부님과 신자들의 텁니바퀴 사이에서 교량적인 가교 역할과 사목회를 운영할 만한 지도력과 신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사목회장의 추천은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도 신부님은 시종일관 “십자가를 사양하지 말고 순명하십시오.”하며 제 말문을 막으시고, 사목회장직을 수락하고 바로 사목회 임원의 인적 구성과 조직 작업을 착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상념 속에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하였느니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스치기에 신부님의 말씀대로 순명하고 회장직을 수락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갈등과 번민, 모든 고민이 해소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구약을 보면 한결같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에는 필수적으로 인간의 협력(도움)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런 경우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몹시 타락하자 하느님께서는 노아를 인류 구원

의 도구로 쓰셨고(창세 6,14),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성조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던 일(창세 18,22),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키셨던 일, 또 성부께서는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파견하시어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성모 마리아의 태중을 선택하셨던 일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창립하기 위하여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일 등을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계심을 뒤늦게 깨닫고, 사목회장직을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24명의 사목회 임원은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신부님을 중심으로 사목의 기본 방향과 본당 운영 방침을 근간으로 하고, 또 2,500여 명의 교형 자매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부님과 사목회 임원, 그리고 교우 여러분 등 삼위가 조화를 이루고 혼연일체가 되는, 삼박자가 유연하게 연결되어 사랑을 통해서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목회 임원은 맡은 바 소임을 스스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각오입니다. 결코 사목회 임원으로서 권위나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주님의 착한 종이 되어, 주님의 뜻이 이 고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충직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내적 쇄신을 기하면서 본당 발전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예수 마리아께서 채워 주시리라 굳게 믿으면서 주님의 착한 종이 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병풍, 가리개, 족자 전문 동양자수

김용섭(마르띠노)
옹은숙(모니카)
대야 천주교회 상가
☎ (0654)451-3928
(0654)451-6347

우리 온돌 전기 팬넬

전 북 총 판

- 우리 온돌은 에너지 저감통입니다.
- 2일치 연료로 3일을 뺍니다.
- 24시간 따뜻합니다.
- 강우금(대건 안드레아)
주임순(바울라)
신대산업 ☎ 78-1363

축! 확장 이전
결혼 예물 전문(금·은·보석·시계)

고려보석

목주반지 제작

김형태(율리아노) 박태연(마르타)
전동 성당 사거리
☎ 82-9005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 장·드레스마委屈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밭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잠깐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14. “새 세상을 열자”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 천지가 되어 있었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은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땅 위에 사십 일 동안이나 폭우가 쏟아져 움직이던 모든 생물이 숨지고 말았다”(창세 6-9장).

성서는 홍수 뒤 새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과 지금의 세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썩은 모든 것들이 쓸려 나간 뒤에도 하느님을 진노케 한 바벨탑이 세워졌고, 그 역사는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하려고만 하면 못 할 일이 없는”(창세 11,6) 인간, 신의 경지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느끼는 우리는, 반면에 너무도 비인간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과학 발전과 인류 진보라는 미명 하에 생명 파괴, 환경 파괴, 양심 파괴… 두렵다. “야훼께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하셨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다시 새 세상을 계획하실까 몹시도 두려운 것이다.

새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 매우 지난(至難)하지만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시대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세상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징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것처럼 교회가 노아가 되어야 하고 무지개가 되어야 할 때이다. 엑스포에 교회가 참여하면서 거듭 다짐해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투신하는 교회여야 한다.

교구소식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11월22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파워 오브 원

1. 선교 체험, 성공사례 수기 공모 : 11월20일까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문의 85-2935.
2. 중·고 교리교사 성탄 연수 : 11월20~21일 나바위 피정의 집.
3.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11월21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타.
4.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11월15일(월) 오후7시 가톨릭센타 회의실.
5. 예비 신학생 모임 : 11월21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타.
6. 수녀연합회 월례회 : 11월16일(화) 오전10시 가톨릭센타 3층.
7. 제47차 M.E 주말 피정 : 11월19일~21일 천호 피정의 집.
8. 영성강연회 : 11월20일(토), 21일(일), 22일(월) 장소-서강대학교 이냐시오관 소강당, 강사-모리스 덜러드 신부, 문의 (02)705-8666
9. 결핵환자를 돋기 위한 크리스마스 쌀 판매 : 11월 초~12월 중순, 1매당 120원, 판매처-사회복지회 및 각 본당 사무실.
10.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 11월15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타 3층.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 11월21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0652)74-9262.

살레시오수녀회 : 11월21일 오후1시 인보성체 수녀원(062)55-0332.

성모영보수녀회 : 11월21일 오후2시 상지원 수녀원(0653)862-0880.

동정성모회 :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 (0652)222-5269.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손수 옷을 만듭시다(1)

옷을 그만 입겠다고 하기 전에 다른 철에 입을 수 있게 조금 고치거나 수선을 하거나 또는 다른 옷으로 변형시켜 개성적으로 입어봅시다.

구(九) 죽영

- 9번 구운 약용(신경성 위장병)
- 3번 구운 식용(반찬, 치아, 김장)
- 3번 구운 미용(사우나)
- 판매원 모집(판매처 모집)
 - ☎ (0658)547-9970
 - 📠 012-688-0993

차향주 미용실

-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센,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지도 상담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풀소)
☎ 88-7717~8

(有) 경일건설

- 조립식 건축, 시무실 칸막이, 건축, 토목, 샌드위치판넬, 콘테이너 하우스
김 해선(레미지오)
구 소방서 ↔ 흥국생명 중간
☎ (0652)75-0161 · FAX 71-6302
호출기 012-681-0055

요십이 (1055) 김병오

저 사람이 과거 청산을 반대하는 민자당 국회의원이란?

왜 반대할까?

과거를 둘러내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반대하겠다.

그 국회의원이 유신 때와 군사 정권 때 큰 감투를 썼었는데…

우리 형님 김덕동(요한)
아시는 분 놀러오십시오!

김덕동(요한) 쿠봉순(마울라) 부부
칠순 및 회갑연

- 때 : 11월20일(토) 전 11시
- 곳 : 스위스 가든
김병업(베드로) · 이후(토마스) 신부

말씀 큰잔치

- 제9회 성서주간 -

93년 11월 22일~27일

특별 할인

성바오로 서원

☎ (0652)252-3398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자매회 성소자 모임

- 때 : 11월 21일 오후 1시
- 곳 : 음성 본원
- 문의 : (0446) 78-9810~12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오늘은 평신도 주일(2차 현금 있음)

1. 반회장 경질 : 충노19반 김영숙(유리안나)→정영래(데레사) 2. 자모회 임원 : 회장—이병일(빅토리아) 부회장—분선자(안엘라) 충무—나남순(호노라나) 회계—이선화(밸리니아) 3. 빈첸시오회 임원 : 회장—양선순(크리스티니) 부회장—조분님(세노비아)→오윤자(안엘라) 서기—박윤순(유리안나) 수고하시겠습니다. 4. 중·고 교리교사 성탄 연수 : 20~21일 나바위. 5. 모임 : ①여성 연합회(16일 어머니미사 후) ②제속 형제회(20일 후 2시) ③대전회(21일 장엄미사 후) ④꾸리아, 천사의 모후—14일 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14일 후 2시. 6. 측! 흔인 : 21일 후 12시, 신랑·원관, 신부—최현성(레지나) 7. 금주 청소 : 충노1, 2반. 차주 청소 : 충노3, 4반.

□ 지난주 봉헌금 : 933,080원 □ 교무금 : 94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 길 평

1. 평신도 주일 2차 현금 : 오늘. 2. 사목회 임원 개편 : 사목회장—황길평(프란치스코) 부회장—김홍현(요셉) 전광원(마르코) 충무—나경설(안셀모) 선교—김현덕(마리아노) 전례—오교성(미카엘) 제경—안철조(도마) 교육—지혜용(요한보스코) 정소년—신태섭(안토니오) 사회복지—유두식(요셉) 홍보—정승판(마카) 예령—이감진(요한) 여성분파—황민금(베로니카) 구역분파—안정해(카타리나) 감사—오희웅(암브로시오) 강영진(아오구스티노) 3. 회합 : ①요세희—오늘 장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 2시 ③청년회—오는 저녁미사 후 ④부녀회—18일 오전 10시 ⑤성우회—21일 공식미사 후 차주 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나경설 부부. 봉헌—김영기 가족. 금주 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오장수 부부. 봉헌—강기연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557,320원 □ 교무금 : 1,051,85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11월은 위령 성월.

- 주일미사 참여와 기도와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1. 오늘은 평신도 주일 : 모든 미사 중 2차 현금.
 2. 모임 :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자모회—다음 주일.
③장년회—20일(토).
 3. 측! 흔인 : 신랑—양수환(원선시오) 신부—허정자, 21일 오후 1시.
 4. 각 제단체는 '94년도 사업 계획서 제출바랍니다.
 5.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무금 봉헌은 다 하셨는지요?
 6. 차주 전례 : 해설—이춘봉. 독서①강덕용 ②우경숙
봉헌—김단오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90,900원 □ 교무금 : 478,5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연중 제 33주일!(평신도 주일) 2차 현금 있음.

1. 재속 프란치스코 3회—11월14일(오늘) 오후 2시.
2. 성모회 : 11월21일(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3. 초등부 교리교사 성탄 연수 : 11월13일(토)~14일(일) 장소—나바위 피정의 집.
4. 가정 방문 : 11월17일(수) 18반, 19반. 11월23일(화) 23반, 24반. 24일(수) 15반, 22반.
5. 중고 교리교사 성탄 연수 : 11월20일(토)~21일(일) 장소—나바위 피정의 집.
6. 전례부 모임 : 11월18일(목) 오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 891,500원 □ 교무금 : 793,000원

* 용마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연중 제 33주일!(평신도 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 사목회.
2. 오늘 평신도 주일 : 2차 현금.
3. 구역, 만미사 : 11월 17일 4구역 1반.
4. 93년도 교무금 :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청소 봉사 : 4구역 1반, 2반.
6. 물뜨레야 : 21일(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774,300원 □ 교무금 : 848,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명 행

◎ 연중 제33주일—위령 성월

1. 금주 : ①평신도 주일(2차 현금) ②자모회(전 10시)
③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2. 성모회 : 16일(화) 오전 11시. 3. 뱃에따회 : 17일(수) 오전 11시
4. 구역반장 회의 : 18일(목) 오전 11시.
5. 중·고 교리교사 성탄 연수회 : 20일~21일(나바위 교육관)
6. 차주 : ①바느티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②청년연합회 월례회(저녁미사 후)
7. 글로리아 성기대 정기발표회(본당 주보 성인 경축) : 12월 4일(토) 오후 7시30분(예정)
8. 감사합니다 : 휴게실 건축 300만원(교구 성서교실)
휴게실 소파(지동칠·프란치스코), 난로(최종만·요한)

□ 지난주 봉헌금 : 1,951,21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 ◎ 평신도 주일 : 강론—강상근 회장, 2차 현금 감사 합니다.
1. 가정 방문 : 16일 5~1반 전 9시. 2~1반 후 2시30분, 18일 5~2반 전 9시. 6~3반 후 2시. 19일 8~1, 2~2반 전 9시.
2. M.E 47차 강습회 : 19일~21일 박경주 부부, 양대규 부부.
3. 중·고 교리교사 성탄연수 : 20일~21일 나바위 대전 교육관.
4. 성기축회 : 청년성가대—오늘 저녁 8시, 중고 교사회—20일 저녁 8시. 성모회—17일 11시 미사 후, 초등부 교사회—20일 후 5시.
5. 교도소 후원회 월례미사 : 15일 전 10시30분 센타 3층.
6. 성체회(6월12일 세계제) : 오늘 공식미사 후 전체 모임.
7. 측! 고회 : 김덕동(요한) 예령회장님. 측! 회갑 : 꽈봉순(바울라) 20일(토) 축하미사 11시, 장소 : 스위스 가든.

□ 지난주 교무금 : 1,361,610원 □ 교무금 : 1,82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이 성 무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평신도 주일 2차 현금이 있습니다.

1. 성모회, 자모회 : 오늘 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439,150원
2. 물뜨레야 : 다음 주일 미사 후. □ 교무금 : 1,185,500원
3. 에비자 교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4. 성가 연습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 반모임 : 16일(화) 오전~성원, 오후~운남, 저녁~삼정 1, 3, 17일(수) 오전~화산1, 활성, 오후~신일. 18일(목) 오전~그린 1. 오후~그린 2.
6. 전신자 등반 대회 : 21일(일) 미사 후(오봉산) 회비—5천원.
7. 대림4주간 특강 : 주일 낮미사 초청 신부님의 특별 강론에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전례 : 최정순, 강희연. 독서·봉헌 : 이완자, 김길호.
차주 전례 : 이완자, 정준성. 독서·봉헌 : 육연숙, 강희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입니다(평신도 주일 2차 현금)

1. 자모회 : 11월16일(화) 오전 11시.
2. 성가 발표회 : 제2회 파티마 성가대 발표회—11월20일(토) 오후 7시30분(성가대 발전을 위해서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고미시움 : 11월27일(토) 오후 3시.

미사 안내 : 금주—파티마 모후, 능하선 모후. 차주—증거자들, 자비의 모후. (미사 안내자는 해당 미사에 절저한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446,460원 □ 교무금 : 1,615,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양 익 도

1. 평신도 주일 : 오늘 2차 현금이 있습니다. 2. 사목회 임원 명단 : 회장—임익도. 부회장—김용무, 김상권, 김화자. 충무—이중표. 선교—조세영. 전례—김광년. 교육—김낙완, 제경—임해 두. 청소년—이준영. 홍보—이종상. 사회—이수원. 예령—김갑수. 여성—김요숙. 구역—경정희. 감사—남상용, 소철영, 정효현, 박윤업. 고문—이병선, 김용태, 황태규, 김규완, 송재진, 체수현, 이교성. 고미시움 : 17일(수) 오후 2시 한신APT3,45반. 18일(목) 오후 2시 현대APT1,5반. 19일(금) 오후 2시 현대 2,6반. 차주 모임 : 성전 건축위원회, 신축 현금 봉헌액 : 1,720,000원. 금주 전례 : 해설—정원희. 독서①이전태 ②김기순, 봉헌안내—임병룡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이한은. 독서①임만호 ②신미향. 봉헌 안내—강인성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501,310원 □ 교무금 : 1,774,000원